

익산시, 환경오염 신고포상

무허가·무단방류·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익산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3호에 공포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징역형, 벌금형 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

이로써 월 최대 100만원이다.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관련부서(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지원과 ☎859-7275)에 전화, 서면접수로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시 홈페이지 '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는 13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관공소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담당계장과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 동향 공유 및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 전략 마련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 직원 역량강화

특강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 동향 공유 등

군산시가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산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시는 13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관공소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담당계장과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관련 정부 정책 동향 공유 및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 전략 마련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국가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글로벌엔코리베인파크 박동원 대표가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시대 한국형 뉴딜의 특성과 주요 내용, 군산시 주요정책의 추진전략 수정 및 신규정책 개발 방향 공모사업 주요내용

공유 방법 및 정책자료 사이트 활용법,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군산시가 지난 10일 개최한 한국판 뉴딜 대응 정책토론회에 이어 직원 역량강화 교육까지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판 뉴딜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합하는 군산형 뉴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제적 사업발굴로 잠재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시, 도내 첫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시비 9억원 투입, 카드수수료 전액 최대 240만원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최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에 나섰다.

시는 13일 자체 예산 9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카드수수료 초과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전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 중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될 금액은 50만원에 대한 초과분 전액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다이용 카드로 지급하여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신청자 6,500여명에게 1차

로 18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추가 지원으로 1,900명의 소상공인에게 9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어 도비와 시비가 추가확보 되는 대로 2차 접수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소방차량 골든타임 도착률 향상

올 7월까지 익산소방서 소방차량이 익산 지역 방방 곳곳을 누볐다.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020년 7월까지 소방차 골든타임(5분 이내) 도착률을 3.4% 향상시켜 56.8%의 도착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151건의 화재출동에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56.8%로 전년도 53.2%보다 3.4% 증가했으며 평균 시간은 5분 33초를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5분 이내 평균 시간이 전년 5분 52초에서 19초 단축된 5분 33초를 기록했다.

또 7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69.8% 평균 시간은 6분 19초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도착률은 6.3% 향상 평균 시간은 24초나 단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익산소방서에서



익산소방서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151건의 화재출동에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56.8%로 전년도 53.2%보다 3.4% 증가했으며 평균 시간은 5분 33초를 기록했다.

화재현장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강화, 소방차 길터주기 및 전동시

장 소방통록 확보 훈련,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특수차량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의 명물' 명산시장 말복맞이 삼계탕 판매행사

군산의 명물 명산시장에서 말복 맞이 삼계탕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명산시장이 14일 오후 2시 중국화교 소학교 앞에서 판매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 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이한익)이 주관해 진행하게 되며, 시장상인 소득증대와 더불어 방역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 차량을 통한 구매만 가능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산시장 주차입구에 차량 통행 안내 요원이 배치된다.

준비된 삼계탕의 수량은 총 200개로 1인당 최대 2개까지 구매가능하다. 결제는 현금 및 온누리 상품권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진다. 삼계탕을 5,000원에 구매가능하며, 구매금액 중 일부(3,000원)는 명산시장에서 사용가

능한 캐시백 쿠폰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고객 전원에 경품응모권을 지급하며, 경품추첨 또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비대면 추첨한다(명산시장 인스타그램 gunsan_myongsan).

삼계탕의 재료는 모두 명산시장 내에서 구입 가능한 토종닭과 각종야채, 김치, 찰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리 가 완료되어 집에서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명산시장표 간편식'이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도, 군산시, 군산명산시장이 함께하며, 군산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19 극복 문해교육 '모바일 학습'

군산시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해교육 방안으로 '모바일 학습'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개시해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산시 문해교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해교육 학습이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문해교육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구성된 문해학습장은 경로당이 대부분이라 문해교육의 개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의 공백을 줄이고 장기간 휴직 상태인 문해교육자의 일자리 보전 방안으로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문해교육 모바일 학습 방법은 문해교육 사물이 직접 제작한 가정 학습지와 노트, 연필, 마스크를 함께 묶은 학습꾸러미를 각 학습자에게 찾아가 전달하고, 문해교육사는 10명씩 그룹화하여 각각 군산시생생학습관, 시민교육센터, 우리배움터 한글학교에 출근하며 담당 학습자들에게 일대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익산시 · 시민사회단체협

시정 발전방향 모색

익산시가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13일 정현을 시장과 참여연대와 농민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정 발전 간담회를 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에 대한 소통과 협치의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정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익산참여연대, 익산희망연대, 익산시민연대, 익산시농민회, 교육문화중심 '이행복', 솔라1000생활 등 6개 단체 대표를 포함해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